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앞으로 8일

'94 전교인 가족수련회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성도들은 휴가 기간을 조정하는 등 이 기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왔고 이미 많은 가정들이 등록 신청을 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인 가족 수련회 준비위원들은 지난 두 해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각 분과별로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경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가정공동체」라는 이번 수련회 주제와 관련하여 가정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접할 수 있는 특강과 예년과는 차별화된 몇가지 프로그램으로 '가족' 수련회의 특성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 가족끼리, 다락방 식구끼리 엮는 정다운 프로그램 마련

수련회 현장에서 제작 가능한 일들을 찾아 가족끼리 공동작업을 하여 그 결과물을 전시하며 콘테스트도 열 예정이다. 특별한 준비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가족의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이면 된다. 폐품 등을 활용한 작품만들기에서, 간단한 요리, 공작, 다락방 가족들이 엮는 수련회 신문 등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담은 것이면 무엇이든 출품할 수 있다.

▶ 온 가족이 해변에서

몸도 마음도 휴식하기 위한 수련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해변에서의 시간이다. 서울교회의 전교인이 한가족되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헌신의 밤 -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모닥불 앞에서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할 점들을 찾고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다. 크고 비밀한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 '93전교인 가족수련회 (여름성경학교 평경)

▼ '92전교인 가족수련회와 관동지역 복음화 대회



우리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 선택하여 듣는 다채로운 특강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에 하나는 선택해서 듣는 특강시간이다. 가정 문제에서 대두되는 쟁점들을 다루되 강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3일간 연속하여 강의하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순차적으로 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특강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문제와 가정교육 - 김용진 박사
- ② 결혼과 부부문제 - 심상권 박사
- ③ 산업사회와 성문제 - 송길원 박사
- ④ 기독교 가정과 교회생활 - 김향숙 선생
- ⑤ 의학윤리 (대청부 특강) - 이종윤 목사

장년부의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교회학교 학생들은 가정에 관한 영화를 관람하게 되며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은 장년들이 가족관계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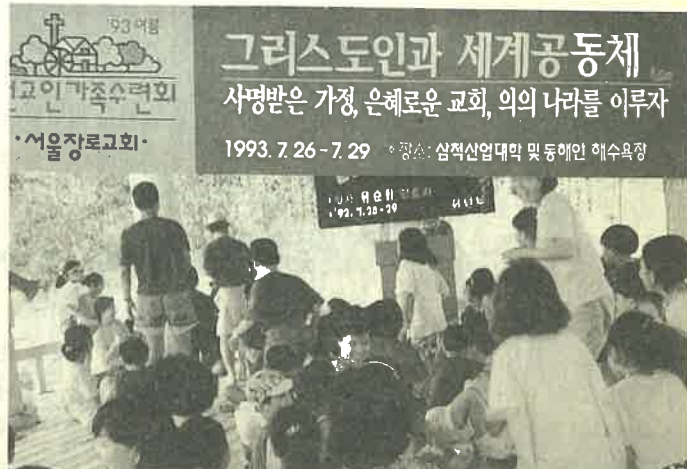
▶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별로 개최하는 여름성경학교를 알차게 엮어가기 위해 교회학교 지도 교역자와 교사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출발시 질서에서부터 버스 안, 취침시간 전후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이고 공동체 훈련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의 기회로 삼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세워가는 일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 출발을 위한 준비

다음 주 월요일 새벽 6시, 잠실 운동장에서 출발한다. 출발 당일, 현장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 다락방별, 혹은 교회학교별로 지정받은 버스를 잘 확인하고 탑승하면 된다. 월요일 새벽이므로 다음 주일 이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개인별 혹은 각 가정별 준비물은 성경책과 찬송가, 워복과 필기구, 간단한 침구, 세면도구, 손전등, 유니폼에 운동화 차림의 간편한 옷차림, 갈아입을 옷, 긴팔 상의, 수영복, 그리고 ... 기도하는 마음.



창세기
강해

셈의 자손들

(창세기 11장 10 ~ 32절)

이 중 윤 목사

일반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말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약을 마감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야가 오신다고 예언하며 나타나기까지의 그 기간을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이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흩어진 후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시 별다른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 외에는 어떤 모습도 보여준 것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역사 사건은 전무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있을 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에 속하는 족보가 본문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10장 22절에 나타난 셈의 아들 중에서 에벨의 조상인 아르박삿의 후예들의 이름만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부친까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그루터기를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구별하셨습니다.

1. 셈의 기사

'후예'란 '기사(account)'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자신과 자손을 연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에는 이 '후예'라는 단어가 11번 나타납니다(창 2:4, 5:1, 6:9, 10:1, 11:10, 11:27, 25:12, 25:19).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가 마태복음에 빠진 것이 있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구약에는 없는 이름도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역사성, 즉 연대기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구원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꼭 필요한 사람만 넣은 것이기 모든 족보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칠십 오세 때 하란을 떠났다고 했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이백 오세를 살았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데라가 일

백 삼십세 때 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문 11장 26절에 데라는 칠십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했으니 칠십세부터 일백 삼십세까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 성경의 앞뒤가 안맞는 것 같으나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는 의미 보다는 셈, 함, 야벳의 순서와 같이 중요한 인물을 앞에 두는 관례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일백 삼십세에 낳은 아들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아서 분명합니다. 따라서 26절은 칠십세가 지난 다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 칠십 오세에 죽었습니다(창 25:7). 성경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BC 2123년 경에 해당한다고 볼 때 셈과 셀라와 에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만일 데라 나이 칠십세 때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면 에벨 보다 더 오래 산 것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연대기적 시간표는 실제 시간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역사가 구원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을 뿐입니다.

2. 세계사의 목적

바벨탑을 쌓은 후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말은 역사의 목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야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야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에 이른다는 메세지로 역사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를 역사의 정점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3.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이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11장에는 5장에서 나오는 죽었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메시야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에 죽음의 포

함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까지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와 그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수 24:2).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월신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르는 데라가 아들 하란을 낳은 곳이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곳이며 비전도 전인력도 없는 데라는 결국 우상 숭배하며 하란에 머물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9-10절에서 믿음만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조상이 좋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과 저주를 받은 바벨탑 교훈과 세상과 야합해서 편리주의적 삶을 살았던 데라의 행적을 바꿔 놓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 없고 행한 것 없지만 배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사랑으로 자유를

사랑은 모든 덕성을 완성시킬 집합체이며 그러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용서도 아예도 화목도 친절과 부드러운 태도도 흘러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되 참는 이유를 알고 불평없이 기쁨으로 참는다. 억지로 참는 것은 버티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랑의 인내는 아니다. 사랑은 고통의 의미를 알게도 하고 만들게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통해 지혜도 얻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도 없다. 사랑은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게 한다. 사랑이 없는 자는 낙약해지고 사랑을 상실한 자는 포박한 자가 된다.

오늘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된 사랑을 회복시키고 정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사랑의 회복으로 가능하며 우리들 개인의 상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때에만 비로소 바른 가치와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더위를 이기는 법

바짝 타 들어가는 들녘으로부터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들리고 52년 만이라는 더위의 신기록 갱신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크리스찬인들 이 자연의 괴력 앞에 세상사람들과 뭐 다른 뵈쪽한 수가 있으리라는 우리의 작전은 세상사람들의 것과는 근본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시원한 곳을 찾아 이동하며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고 종내에는 닥치는대로 짜증을 부리며 더위를 피해가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더위 사냥은 자연의 섭리 앞에 땀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바지런히 움직이며 땀을 흘려내고 감정을 절제하며 더위를 무시하듯 하여야 한다.

온 가족이 손가락 하나씩 들고 반동짜리 수박에 손가락 전쟁을 하노라면 터져 나오는 웃음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요, 몸은 움직이지 못할 폭염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하나 하나 떠올리며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

소망의인내로

자연의 괴력 앞에
별 뵈쪽한 수가 있으리라는
성숙을 위해 인내하며
결실의 소망으로
더위를 즐기는 것이 필요할 듯

김세제 집사

들의 곡식들이 결실을 위해 가혹하리만치 따가운 햇볕을 참아내는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숙을 위해 인내하며 결실의 소망을 이 더위 속에서 즐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시37:7)

“하나님 아버지, 삼복 더위 정말 답사웁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에 더위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 남편 한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무엇이나 다 하겠다고 맹세하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의 곳은 일도 다 - 하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이십 팔년 동안이나 철저한 불교신자로 살던 제가 그 소원 때문에 불자라면 중히 여기는 염주, 법복, 액자 모두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완악한 제 마음이 열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음이 기적같기만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찬송 속에 가신 그 분은 넓으신 하나님 품으로 가셨을 터이니 주님, 그 영광을 생각하면 더움도 사라지는 듯 합니다.

첫 사랑의
뜨거움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힘써성도들을사랑하는 일로
땀흘리겠습니다.

김완남 성도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에 부는 바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같이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관대하게 용서했듯이 예수님께서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고, 성경 말씀 구구절절이 모두 제게 주시는 말씀같이 더위도 잊은채 땀이 하여 읽으며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가슴 속까지 시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우신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땀을 흘리려 합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의 일들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의 연약함도 용납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형제, 자매들을 저도 사랑하는 일로 땀 흘리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이 첫 사랑으로 더위를 이겨 나가렵니다.”

- 초신자 김 완 남 드림 -

지리한 장마비에서도 교훈을 얻는다. 방울비가 물이 되어 흘러내려 간다. 온갖 더러움과 공해와 만물도 씻어내리면서. 그런데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흘러 간다.

장마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 일상의 일들을 의연히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수련회를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더위가 즐겁다.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의 전반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보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만 하다. 모든 기회를 통해 부어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은 마치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듯 낮은 데로, 낮은 데로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함으로

낮은 데로 임하실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시원하게
이영숙 집사

는 마음, 은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에 분주해야 하겠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겸손한 순종으로 영광돌리는 여름이어야겠다.

수련회를 통해 삼척의 공기를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은혜와 서로를 향한 겸손한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달구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몸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도 좋다는 동해안 바닷물에 몸도 담그어 보고 짧은 기간 이나마 공동생활을 통해 주의 사랑을 형제와 함께 하고 우리 가정도 한 번 더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더위를 맞이들이는 그런 여름이 되련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서(understand) 낮은 데로 낮은 데로만 임하시는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시원하게 받아야지.



러시아 선교여행기

김 선 미 권사

6월 8일 오전 11시 김포공항 출발, 9일 모스크바 도착.

이튿날, 병원에 전도를 갔다. 기도와 봉사(포인트 치료)로 환자들이 나음을 경험하였으며 동행한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열고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으나 약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12일에 있을 뼈아찌골스크 소망교회로 가기 위해 보느웨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내 옆에 마침 러시아 청년이 앉았다. 39세라고 했다. 이 남자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그래서 먼저 내게 있는 선물용 불펜을 건네 주었다. 그 남자는 ‘스빠시 바 -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좋아하였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지만 거의 세시간 동안 사랑하는 마음과 친절한 모습으로 손짓 발짓 해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 통역의 도움을 받아 예수 믿느냐고 물었더니 모슬렘교도라고 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작지만 예수님을 믿어 복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 온 것임을 밝히고 내일의 집회에 꼭 올 것을 권유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그 청년은 부인과 다섯살 난 딸과 친구를 데리고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무엇으로든 대접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순수하기만 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결실은 하나님께 맡겼다.

220명이 참석한 소망교회집회를 마치고 여집사 댁에서 푸짐한 점심

대접을 받은 후 밤 열차로 10시간을 달려 이한숙 선교사가 시무하는 로스토프 성결교회성결교회에 도착했다. 목회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남편의 뜻을 이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종의 모습이 감명 깊었다. 로스토프 주변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요청해 왔다. 마치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손짓하는 마케도나인을 보는 듯 했다. 우리 「주의 손」 선교회 일행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포용만해주어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의사의 봉급이 너무 적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의 빈약한 봉사도 마음이 가난한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치료가 되었다.



또 다시 14시간의 열차 여행 후 반시워나도 양로원을 찾았다. 우리를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는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봉사하라고 권면하셨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팡이를 짚고 왔던 사람이 지팡이를 메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관광할 기회도 있었으나 봉사할 곳이 너무 많아 봉사만 하기로 결심했다. 결심한 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밀려 왔다.

지난 번 이종운 목사님께서 모스크바를 방문하신 후에 화장실마다 두 명이 없다고 하시기에 설마 했는데 정말 생활 수준은 우리 나라의 4~50년 전을 보는 듯했다. 광활하고 기름진 땅에 수풀만이 무성했다. 오랜 공산주의 치정 하에서 사람들은 게을러졌고 노동의 귀중함을 모르는 듯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이른 비의 은총을 잘 간수하지 못하

고 피폐해진 러시아에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일행 30명에게 대접하려는 선교사 가정에서도 쌀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와 했다. 우리의 풍요로움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기도와 물질로 지혜롭게 나누어 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해마다 개최하는 김치세미나의 목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굶주린 이들을 위한 근

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김치세미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아주는 이들의 손길에는 항상 정성이 배어 있었다. 평양이 고향이라신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온다고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했다. 그들의 갈급한 마음과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선교팀의 봉사를 통해 귀머거리와 병어리도 치유를 받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셨다.

돌아오기 전 우리들은 가지고 간 소지품 중에 두고 올 수 있는 것은 다 남기기로 했다. 모스크바의 사정도 여의치는 않으나 남부 지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로 보내시겠다는 그곳 선교사님 말씀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5개 도시에 20여 회의 집회에 참석하며 봉사한 17일 간의 일정동안 같이 간 선교회원끼리, 그리고 그곳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뜨거운 사랑과 위로와 감사가 넘쳤다. 서로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름다와서 눈물을 흘렸고 또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교육관에서 철수 교회학교 집회장소와 시간 일부 변경

그간 사용하던 교육관에서 완전 철수함에 따라서 오늘 집회부터 일부 교회학교의 집회 장소와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부 서	장 소		시 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 등 부	교육관 5층	본당 201호	오전 11시	오전 9시 - 10시 50분
고 등 부	교육관 6층	본당 401호	오전 11시	오전 11시 - 12시 30분
청 년 부	별관 1층	본당 201호	오후 1시	오후 2시 - 4시
사 랑 부	교육관 5층	별관 1층	오후 2시	오후 2시 -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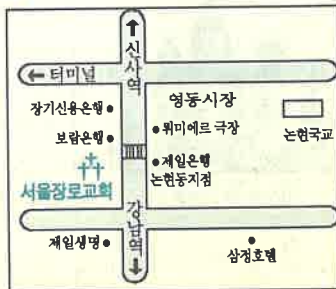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민족복음화를 위한

농촌 전도단 파송

- 8월 1일 ~ 3일, 충북 청원군 은성교회로 -

선교위원회 농어촌 선교분과와 70인전도단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은성교회로 전도단을 파송한다. 전도단이 파송될 강이면 만수리에 있는 5개 마을에 450호 1200명의 주민이 있으며 은성교회는 장년 40명, 학생 30명이 출석하고 있다. 전도단원들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저녁 부흥회, 축조전도와 상담, 의료 진료, 미용·방역 등 지역 봉사활동과 함께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파송되는 농촌전도단을 통해 농촌의 주민들에게 생활용품이나 농기구, 치약, 수건, 화장품 등 잡화에서 아동도서와 학용품, 기타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들을 7월 30일(주일)까지 수집한다.

참가신청서와 일상용품 제출 및 문의는 선교위원회를 지도하시는 김재호 목사나 사무국 ☎ 517-7651로 하면 된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2.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은혜 중에 준비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헌신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4. 농촌 교회들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소서